

KIST 연구원 時節

研究室 컴퓨터와 하루 종일 씨름하기도
한글 워드프로세서 國內처음 개발 "뿌듯"

이기식(대우증권상무·工博)

내외경제 92.4.3. 『옛 寫眞 한장』

사람은 누구나 오늘의 자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서도 가장 좋았던 시절을 지난 간 시간의 흐름속에서 찾으려 하는 습성이 있는가 보다. 특히 옛 사진첩을 뒤적거리다 문득 『그때가 좋았지』라고 중얼거리며 감회에 젖어들게 하는 사진을 발견하는 것은 비단 나만의 경우가 아닐 것이다.

내가 컴퓨터 전문 직업인으로 첫발을 내디딘 것은 71년 KIST 연구원이 되면서부터였다. 당시 컴퓨터는 쉽게 접하기 힘든 거의 새로운 분야 중 하나였다.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보람과 긍지 또한 여간 크지 않았다. 하루 24시간을 꼬박 연구실에서 컴퓨터와 씨름하는 일은 다반사였다.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특하면 한강으로 달려나가 대학시절부터의 취미인 요트에 몸을 맡기곤 하던 것이 지금까지도 생생한 추억거리다.

20년 가까이 KIST 연구원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일들을 겪었다. 그중 나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 성기수 박사이다. 성 박사는 당시 KIST시스템 공학센터 책임자로서 나의 컴퓨터 연구에 여러모로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분이다.

『무엇이든 소신껏 해봐라』란 성 박사의 말은 연구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침으로 삼을 만큼 커다란 용기를 심어주었다.

연구원 시절 가장 인상적인 일은 아마도 한글 워드프로세서 개발이 아닌가 싶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직후 평소 관심을 가졌던 워드프로세서 자료를 모으던 중 마침 과학기술처의 컴퓨터사업 지원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에 이 분야가 선정되었다. 우리팀은 곧 고려시스템과 공동으로 한글 워드프로세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고 마침내 국내 최초로 『명필』이

라는 한글 전용 워드프로세서를 완성해 내었다.

지금은 개인에게까지 보급될 정도로 대중화되었지만 당시로서는 여간 혁신적인 일이 아니었다. 어려움도 많이 따라서 나의 대머리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음은 당시의 동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행히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대중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부끄럽게도 85년 4월 「과학의 날」에 국민포장을 받는 행운을 얻었음은 나의 삶에 자그마한 자랑거리로 남아 있다.

기업체로 옮긴 지금, 나는 여전히 컴퓨터 전문가로 자처하고 있지만 가끔은 머뭇거릴 때가 있다. 전문가란 역시 창조자이어야만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이러한 신념을 불어넣어 준 KIST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은 역시 그때가 흘러간 시간 때문이어서일까.